

영어어문교육 8권 2호 2002년 겨울

절대범주와 상대범주

권 경 원

(목원대학교)

Kwon, Kyeong-Won (2002). Absolute categories and relative categor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8(2), 131-15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wo levels of conceptualization of a category such as an absolute category in semantic level and a relative category in pragmatic level on the basis of Aristotelian category theory and prototype category theory. I do not intend to criticize classical category theory and prototype category theory but to show that these two types of category are applied to the different world. Aristotelian categorization is an absolute category because it is based on the possible world called the meta-world and it has an absolute truth value. The members of an absolute category is presented as a set. There is a clear boundary between members and non-members because they are distinguished by the absolute criteria. An absolute category is semantic conceptualization. This absolute category is changed into a relative category when it is applied in the real world. A relative category which corresponds to a prototype category is based on the real world called the object world and it has a relative truth value. Here individuals are categorized by the cognition and perception of human beings. A relative category is pragmatic conceptualization. In conclusion, while classical categories which are called absolute categories represent sentence meaning, prototype categories which are called relative categories represent utterance meaning.

1. 서론

언어는 인간의 인지에 의한 창조물인 동시에 인지활동의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구조나 언어활동은 일반적인 인지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지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범주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의미를 개념화 또는 인지과정과 동일시한다. 좁은 의미에서 개념화는 범주화라고 할 수 있다. 범주화는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사물이나 사건을 하나로 묶는 인지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언어 범주화는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자기 주변의 세상을 인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범주화하는 수단으로서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범주화는 인간이 인지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 최근에는 원형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의미망(semantic network)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²⁾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고전적 범주이론은 이분법적이며 객관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고전적 범주이론에 의하면 범주의 구성원들과 비구성원들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한 사물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안다는 것은 그 사물의 속성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 사물의 속성은 범주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절대범주와 상대범주의 입장에서 고전적 범주화와 원형적 범주화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전적 이론에서 주장하는 범주화 이론은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원형이론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적 범주이론은 절대범주로 의미론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고 최근의 범주이론은 상대범주로 화용론적 개념을 나타낸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고전적 접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속성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구분했다. 본질적 속성은 어떤 사물을 현재 상태의 사물로 만들어 준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 속성은 사물들 속에 내재하는 것으로 사물들의 개별성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의 파괴는 그 사물 전체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비본질적인 속성들은 우연한 속성들로서 어떤 사물의 현재 상태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인간의 본질은 두 다리가 달린 동물이다. 반면에 인간이 흰색이거나 교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비본질적이다. 즉, 이러한 비본질적 속성들은 어떤 개인에게는 사실일 수 있지만 어떤 개체가 인간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는 개념과 인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본질에 대한 공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두 다리를 가진 동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다음을 뜻한

-
- 1) 여기서 개념화는 Jackendoff(1990)가 제시한 개념구조와 다르다. 이익환(2000)에 의하면 인지의미론은 통사적 층위와 의미론적 층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인 층위로 간주하는 반면에 형식문법에서의 개념의미론은 독자적인 통사적 층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 2) 이기동(1994: 308)은 ring의 원형적인 의미인 반지에서 코걸이를 나타내는 의미로 확대되는 과정을 의미망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만일 X가 인간을 의미하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것이 인간이라면 그 개체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속성은 X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개체가 인간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데 단어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개체를 인간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두 다리를 가진 동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개체 X를 Y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개체 X가 Y의 범주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다리가 둘]이라는 것과 [동물]이라는 필수적인 자질(feature)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자질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갖지 못하면 그 개체는 인간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자질은 인간이라는 범주를 정의하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주를 정의하기 위한 필수적 자질은 필요 충분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고전적 접근 방식의 기본 가정이다. 두 번째 모든 개체는 어떤 자질을 소유하든가 아니면 소유하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자질은 이원적이다. 따라서 모든 자질은 [+] 값을 갖든지 아니면 [-] 값을 갖게 된다. 세 번째는 어떤 범주든지 일단 결정되면 그 범주의 구성원이 되는 개체들과 구성원이 아닌 개체들로 구분된다. 동시에 두 범주의 구성원이 된다는가 아니면 어느 한 범주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개체는 없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범주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범주의 정의 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개체는 그 범주의 완전한 구성원이며 그들은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말한다. 반면에 그러한 정의 자질들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개체는 그 범주의 구성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범주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범주화 모형은 현대 언어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음운론과 의미론에서는 고전적인 범주이론을 받아들여 더욱 체계적이고 풍요하게 만들었다.

음운론의 범주들을 이원적, 원소적, 보편적, 추상적, 선천적 자질들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통사적인 범주나 의미론적 범주들도 동일한 성질의 자질들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³⁾ 의미범주에 대한 분석은 변형이론 내에서 Katz & Fodor(1963), Katz & Postal(1964), Bierwisch(1967), Nida(1975), Leech(1981) 등이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Katz &

3) 음운론적 자질들이 분류상의 장치들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것들은 이원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항목이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원적 자질들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이다(Chomsky and Halle, 1968: 297). 이원적 체계를 이용하면 다른 항목들과의 대조가 분명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질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Ladefoged(1975)는 다가치 음운자질을 제안했으며 Leech(1981)에 의해서 다가치 의미자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Postal(1964)은 *bachelor*의 의미성분을 [HUMAN], [MALE], [ADULT], [UNMARRIED]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이 네 자질들을 지니고 있는 개체는 무엇이든지 간에 *bachelor*라는 단어에 의해 지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네 자질들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bachelor*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다.

의미범주에 대한 자질 접근방식의 경험적 정당성은 언어학자들이 자질을 이용하여 언어구조에 대해 경제적이고 통찰력 있는 기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자질 접근방식은 세 가지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어휘들 사이에 존재하는 내부적인 관계를 밝혀 주었다. 예를 들어 *bachelor*와 *spinster*, *boy*와 *girl*, *husband*와 *wife* 등은 서로가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쌍이다. 이들은 한 구성원이 [MALE]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구성원은 [FEMALE]의 자질을 지닌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루고 나머지 자질들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질분석은 하의어 관계(hyponymy)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bachelor*는 *man*의 하의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의미자질(semantic feature)에 의해서 자연적 부류를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HUMAN]에 의해서 인간 부류를 정의할 수 있고 [ANIMATE]에 의해서 생물과 무생물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부류에 대한 정의는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단어들이 결합하는데 주어지는 제약을 선택제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모든 명사가 다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은 선택제약을 어긴 문장들이다.

- (1) a. *Sincerity admires John.
b. *Truth broke the window.

(1a)는 *admire*의 주어로서 *sincerity*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다. *admire*의 주어는 적어도 사람이 와야지 *sincerity* 같은 추상명사는 주어가 될 수 없다. (1b)의 경우에도 창문을 깨려면 [SOLID]의 자질을 가진 것이 주어가 되어야 하는데 추상명사 *truth*가 왔기 때문에 비문이 되었다. 세 번째 의미자질은 문장 의미의 종류를 밝혀 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 a. This man is a bachelor.
b. This bachelor is a man.
c. This bachelor is my sister.

(2a)는 의미상으로 종합적인 문장이고 (2b)는 분석적이며 (2c)는 모순(contradiction)이다. 여기서 종합적이라는 말은 주어진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world knowledge)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a)가 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this man*에 의해서 지시되고 있는 개체가 정말로 총각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반면에 (2b)의 진리값(truth value)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상지식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bachelor*는 모두 남자이기 때문에 구태여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어진 의미에 의해서 항상 참이 되는 것을 분석적 참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2c)는 *bachelor*는 [MALE]의 자질을 지니고 있고 *sister*는 [FEMALE]의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고 있다. 이처럼 의미자질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다음 예문은 두 문장 사이의 함의 관계를 나타낸다.

- (3) a. John is a bachelor.
- b. John is a man.
- (4) a. John is a bachelor.
- b. John has never been married.

(3a)는 (3b)를 함의한다. 다시 말해서 (3a)가 참일 때 (3b)는 반드시 참이 된다⁴⁾. 이러한 함의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는 *bachelor*의 의미자질 속에 *man*이라는 속성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4)의 경우에는 상호함의(mutual entailment)하기 때문에 두 문장은 동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4a)가 참이면 (4b)가 반드시 참이 되고 (4b)가 참이면 (4a)가 반드시 참이 된다. 동의관계도 의미자질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문장 사이의 접속 관계를 보여준다.

- (5) a. This man can't be a bachelor, because he has been married before.
- b.? This man is a bachelor, but he's never been married before.

(5a)에서 후속절은 총각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 *because*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5b)에서의 후속절은 선행절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 *but*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but*은 앞서 제시된 내용이 부정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장 사이의 접속 관계도 의미자질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의미자질에 의해서 단어 의미들 사이의 관계와 문장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Katz & Postal(1964)은 단어 의미에 대한 완전한

4) 두 문장 S_1 과 S_2 가 있을 때 이들 사이의 논리적인 함의관계는 다음과 같다.

S_1	\rightarrow	S_2
T	\rightarrow	T
F	\leftarrow	F
F	\rightarrow	T \vee F

자세한 것은 권경원(1988), Ruth M. Kempson(1977) 참조

분석은 그 의미를 가장 기초적인 성분들로 분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단어 의미의 가장 기초적인 성분 즉 의미소들은 보편적(universal)이라는 주장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주장은 모든 언어가 동일한 의미성분(semantic component)을 이용하고 있으나 언어마다 분포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의미자질에 대한 보편성 주장은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문화적 어휘는 보편적 의미자질에 의해서 분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입장은 음운자질에 관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입장으로 인간의 언어를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편적인 의미자질의 집합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개별 언어는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의미를 기술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서는 그 언어에만 특별히 필요로 하는 의미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편적 의미자질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마지막 입장은 인간의 언어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의미자질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모든 인간의 언어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보편적 의미자질이고 두 번째 유형은 개별언어를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미자질 이다.

마지막으로 의미자질의 추상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부 언어학자에 의하면 [ADULT]와 같은 의미자질은 단어 *adult*의 의미나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어른들이라는 개체와 동일시 될 수 없다. Bierwisch(1970:181)에 의하면 단어나 문장의미를 규정하는 의미자질은 인간 유기체 밖의 어떤 물리적 속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의미자질과 같은 보편적 자질들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2000년 동안 서양 사고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이분법적인 객관주의에 근거한 고전적 범주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고전적 범주이론에 의하면

- (a) 범주는 구성원들이 본질적으로 공유하는 속성들에 의하여 정의된다.
- (b) 동일한 범주내의 구성원은 동등한 구성원 자격을 갖는다.
- (c) 동일한 범주의 모든 구성원은 어떤 속성을 반드시 공유해야 하며 그 속성을 공유하는 대상들은 반드시 그 범주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 (d) 이 속성들은 범주를 정의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범주의 구성원들과 비구성원들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진다.

음운론과 의미론에서 고전적인 범주이론을 받아들여 더욱 체계화시켜서 음운자질을 바탕으로 음운현상을 설명하고 의미자질을 바탕으로 의미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음운현상과 의미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전적 범주이론에 다음과 같은 가정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e) 범주자질은 원초적이다.

- (f) 범주자질은 보편적이다.
- (g) 범주자질은 추상적이다.
- (h) 범주자질은 선천적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고전적 범주이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원형(prototype)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원형이론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고전적 범주이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원형이론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겠다. Wittgenstein(1978)은 게임을 정의하고자 할 때 게임범주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통적인 속성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전적 범주이론에 의하면 게임의 구성원들이 지니는 본질적 속성에 의해서 게임과 비게임이 정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게임 범주는 공유된 기준 속성들의 관점에서 구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망에 의해 구조화된다. 전형적으로 그 범주와 연관된 속성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게임 범주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은 없다는 것이다. 게임들 간에 지니고 있는 유사성에 의해서 게임과 비게임의 경계선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유사성들 즉, 체격이나 얼굴 생김, 눈의 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이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이 가족의 경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은 한 가족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Labov(1973)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가정용 그릇들에 대한 언어적 범주화를 연구했다. 그는 다양한 모양의 그릇에 대한 선 그림을 피실험자들에게 보여주고 묘사된 사물들의 이름을 대도록 요구했다. 수평 단면이 원모양이고 밑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밑바닥 최대 폭이 깊이와 같고 손잡이가 달려 있는 그릇은 모두가 컵이라고 말했다. 깊이에 대한 폭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기서 우리는 컵과 사발이 본질적 속성에 의해서 명확한 경계선이 있다는 고전적 범주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한 범주가 점진적으로 다른 범주 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릇에서 손잡이를 제거하면 묘사된 사물들이 컵으로 지시되는 경향이 줄어들었지만 손잡이를 컵의 본질적 속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릇에 뜨거운 커피가 들어 있으면 컵이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폭보다 깊이가 길어질수록 꽃병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밑바닥이 원통 모양으로 넓어지면 머그잔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범주화 할 때 개체들이 지니는 모양, 크기, 재료와 같은 내재적 속성뿐만 아니라 용도와 같은 기능적 속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실험은 내재적 속성에

의해서 범주를 결정하는 고전적 이론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컵이 사발, 꽃병 등의 범주들에 흡수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전형적인 컵으로 기술될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을 원형(prototype)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형들은 범주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의 참조점(reference point)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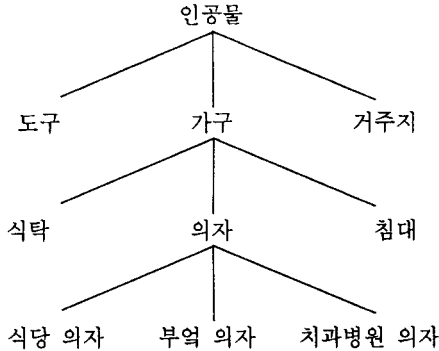
Rosch(1975)에 의하면 색채의 범주화에 있어서도 각 색채들의 범주 경계는 자의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부터 일반화에 의해서 점차 지시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는 피실험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개체가 어떤 정도까지 어떤 범주의 좋은 실례로 간주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연적 범주들의 구조를 탐구했다.⁵⁾ Rosch의 실험 가운데 가구에 관한 예를 보기로 하자. 60개의 가정용 물품 가운데 어느 것이 가구로서 가장 좋은 실례가 되는지를 피실험자에게 물었다. 가장 좋은 실례에는 1점을 적당히 좋은 실례에는 4점을 매우 나쁜 실례이거나 전혀 실례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7점을 주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가구로서 가장 좋은 실례는 의자와 소파였으며 가구로서 가장 나쁜 실례는 재떨이 선풍기 전화 등이었다. 의자와 소파는 전형적인 가구로서 원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그의 실험은 범주 구성원 자격의 정도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구성원 자격의 정도는 'x는 y이다'와 같은 진술을 검증하는데 걸리는 시간과도 관계가 있다. 로빈이 새라는 것을 검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닭이 새라는 것을 검증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적게 걸린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범주의 구성원 자격의 정도와 범주 구성원들의 이름을 대는 빈도수 및 순서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범주의 구체적인 예로 이름을 대라면 원형적인 구성원의 이름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가구, 무기, 새, 운동이라는 범주들의 구성원들의 이름을 대라고 했을 때 각각 의자, 권총, 로빈, 축구를 빈번하게 그리고 먼저 제시했다. 이들은 가장 전형적인 가구, 무기, 새, 운동의 구성원들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⁶⁾ Rosch의 연구에 의하면 원형성은 범주의 두 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표 1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하나의 개체는 수직적으로 의자, 가구, 인공물, 개체로 범주화 될 수 있다. 그리고 각 범주는 선행하는 범주보다 더 포괄적이다. 즉, 의자라는 범주는 가구라는 범주에 포함되고 가구는 인공물의 범주에 포함되며 인공물은 개체의 범주에 포함된다. 반면에 수평적으로는 수직적 범주들의 구체적인 실례들을 보여

5) 여기서 자연적 범주는 자연언어의 어휘가 지시할 수 있는 개념을 의미한다. 자연적 범주는 심리학자들이 학습과 개념형성에서 자주 이용하는 점이나 도형, 문자와 숫자 같은 인공적 범주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6) 이러한 원형에 관한 실험은 명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Pulman(1983)은 look, kill, speak, walk와 같은 동사들이 지시하는 범주들에서도 구성원들 사이에 등급이 매겨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기동(1994, 1996)은 영어의 전치사와 동사, 형용사의 원형적인 의미를 추상적인 도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준다. 이와 같은 범주들의 계층구조는 고전적 범주이론을 주장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도표 1



다시 말해서 수직 축 상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 각 범주가 소유하는 자질들은 정확히 바로 위 범주의 자질들과 하나의 추가적인 구별 자질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주화의 동일 수준에 있는 항목들은 모두가 바로 상위 범주들의 자질들을 공유하지만 각각은 독특한 자질을 지니고 있어서 동일 수준의 다른 범주들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 계층의 자질 모형은 범주화의 동일 수준에 있는 범주들이 언제나 바로 위 범주를 정의하는 자질들의 집합을 공유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고전적 범주이론에 의하면 어떤 수준의 범주화에도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지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다른 수준의 범주보다 더 현저한 수준의 범주화 즉, 기본수준의 범주화가 있어서 지각적 형태와 기능적 형태로 개념화한다는 것이다. 가장 낮은 수준의 범주화는 범주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표 1에서 식당 의자나 부엌 의자 또는 치과병원 의자 등은 범주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가구를 그려보라고 하면 무엇을 그리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자를 하나 그리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구를 만드는 재료를 말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지만 의자를 만드는 재료를 말하라고 하면 이상할 것이 없다. 내가 앉아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무엇이나고 물으면 인공물이나 가구라고 대답하지 않고 의자라고 대답할 것이다. 상위수준의 명칭은 개념적으로 광범위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지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수준의 범주화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수준의 명칭이 사용 빈도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수준 명칭은 일반적으로 짧고 구조적으로 단순

하다. 기본수준보다 하위수준 명칭은 부의의자와 같이 기본수준의 명칭과 수식어로 구성된 복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수준의 범주는 최대의 정보를 제공하며 다른 범주와 최대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범주는 계층구조를 형성하는 범주들 사이에 기본범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주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에도 원형적 구성원과 주변적 구성원들로 구분된다. Rosch(1975)에 의하면 범주의 원형성은 인간의 지각적 속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검정, 흰색, 빨강과 같은 기본색채나 원, 사각형, 삼각형과 같은 기하학적 도형 또는 수직이나 수평과 같은 공간적 방향은 지각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적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원형성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우리가 원형적 구성원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범주의 구성원에 대한 이름을 말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원형적 구성원들을 먼저 말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구 이름을 대라고 했을 때 전 화기나 패총시계보다는 의자나 식탁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 이유는 가구로서 식탁이나 의자를 자주 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그림에서 하늘은 파란색으로 풀은 녹색으로 그려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원형성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은 변형 속성들의 평균값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형적인 새는 평균적인 크기와 평균적인 식성을 지닌 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저한 속성이 원형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원형적인 컵의 특성을 차를 마시는 사회적 규범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Lakoff(1972)가 제시한 경계표현(hedge)을 이용하여 화자는 범주 구성원의 자격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경계표현은 화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언어에 대하여 사용하는 표현이다. 의자라는 어휘가 의자에 대한 표현인 것처럼 경계표현은 언어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6) a. A robin is a bird *par excellence*.
 b.? A turkey is a bird *par excellence*.

(6a)는 자연스럽지만 (6b)는 어색하다. 그 이유는 칠면조가 새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원형적인 새가 가지지 않는 여러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칠면조는 날지 못하며 노래도 하지 않고 크기가 매우 크고 우리에게 갇혀서 먹이를 먹으며 자란다. (6b)가 어색한 것은 전형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계표현 *par excellence* 때문이다. 이 경우에 경계표현은 어떤 범주의 중심적 구성원들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칠면조는 새의 구성원들 가운데 원형적이라기 보다는 주변적이기 때문에 (6b)가 이상한 것이다. 경계표현은 새의 중심적 구성원을 선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새가 여러 등급의 구성원 자격을 지닌 범주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경계표현은 중심적 구성원을 배제시킴으로써 범주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다음 예를 보자

- (7) a. *Loosely speaking*, a chair is a piece of furniture.
 b. *Loosely speaking*, a telephone is a piece of furniture.
 c. *Loosely speaking*, a six-sided figure is a hexagonal.
 d. *Loosely speaking*, France is hexagonal.

위에서 (7a)와 (7c)가 이상한 이유는 의자는 가구의 전형적인 구성원이고 육면체는 육각형의 전형적인 실례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7b)와 (7d)가 자연스러운 것은 전화는 가구의 주변적 구성원이고 불란서는 육각형과 유사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loosely speaking*은 원형적 구성원이 아니라 주변적 구성원을 선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에 나오는 경계표현 *strictly speaking*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

- (8) a. *Strictly speaking*, beans are vegetables.
 b. *Strictly speaking*, rhubarb is a vegetable.

어떤 의미에서 *Strictly speaking*은 장군풀과 같은 주변적 개체를 선별하여 그 개체에 충분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범주의 경계성을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Loosely speaking*은 범주의 구성원들과 연관은 있지만 범주의 구성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성원들을 선별함으로써 범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경계표현은 다음의 예에서 대조를 잘 보여준다.

- (9) A bat is a bird.
 (10) *Strictly speaking*, a bat is a bird.
 (11) *Loosely speaking*, a bat is a bird.

(9)와 (10)에서처럼 단언적으로 말한다고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표현은 거짓이 될 수 있지만 (11)에서는 경계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참을 유도해 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발 물러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경계에 유연성을 주고 있다. 우리는 (11)에서 보통은 거짓으로 간주되는 진술이 참이 되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이 되도록 어떤 진술에 경계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계표현에도 불구하고 (11)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느슨한 범주화의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다.

- (12) *Loosely speaking*, a bat is a bird *in that it has wings and can fly*.

(12)에서 *in that* 은 어떤 개체를 어떤 범주에 넣는 이유를 자세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속성들은 전형적으로 어떤 범주와 연관되지만 그 속성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범주의 구성원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Herrmann(1975)은 *in that*에서

나타나는 속성들은 구성원들의 본질적인 속성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음 예를 보자.

- (13) a.*He killed Alice *in that he murdered her*.
 b. He killed Alice *in that he did nothing to keep her alive*.
 (14) She is a friend of mine *in that I've known her for years, but we are really not that close*.

(13a)가 이상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kill*을 범주화하는데 *murder*를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kill*은 본질적으로 사망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지시하며 *murder*는 *kill*의 중심적인 실례를 나타내기 때문에 (13a)가 이상한 것이다. 반면에 (13b)는 *in that*이하에서 중심적이 아니고 주변적인 사건 즉, 간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14)에서도 수년 동안 알고 지냈다는 것은 친구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친구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계표현은 범주 구성원들의 지위 정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비구성원일 경우에도 범주와의 관련성 정도를 보여준다.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각 범주의 구성원은 모두 지위가 동일하고 비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모두 지위가 동일하다. 그리고 범주의 구성원 자격을 정하는 필요 충분 조건들로 이루어진 고정된 집합이 있으며 그들은 모두 지위가 동등하다. 그리고 범주의 경계는 고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경계표현은 범주의 중심적 구성원과 주변적 구성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구성원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성원과 비구성원으로 양분되는 범주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들 사이에는 구성원 자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IV. 범주유형

이 논문에서는 범주를 객관성을 나타내는 절대범주(absolute category)와 주관성을 나타내는 상대범주(relative category)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절대범주의 개념은 고전적 이론에서 주장하는 범주화의 이론에 해당되며 상대범주의 개념은 원형이론을 주장하는 범주화 이론에 해당된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고전적 이론이나 원형이론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범주의 개념은 두 층위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의미론적 개념을 나타내는 절대범주와 화용론적 개념을 나타내는 상대범주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화용론적 개념이라는 것은 언어가 실제세계에서 사용될 때 화자 또는 청자가 가지는 범주화의 개념을 말한다.

이 두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즉, 절대적 진리(absolute truth)와 상대적 진리(relative truth)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음 예문을 보자.

(15) Mary is beautif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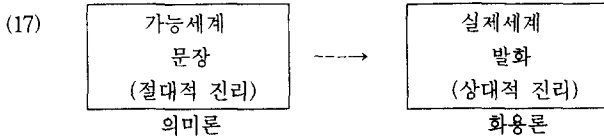
Tarski(1933)가 제시한 진리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주어진 문장 S는 그 문장의 참을 보장하는 진리조건 P가 만족되면 S는 참이 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15)는 *Mary*라는 개체가 존재하고 그 개체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참이 된다. Davidson(1967)은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문장이 참이 되는 조건을 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15)가 참이 되는 조건들이 바로 (15)의 의미가 된다. 이 경우에 (15)는 절대적 참이 된다. 즉 이 문장은 필연적 참을 나타내며 모든 가능세계(possible world)에서 참이 된다. *Mary*가 아름답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참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15)가 주어진 상황속에서 발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적 참으로 바뀌게 된다. 문장 그 자체는 절대적 참이 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발화가 되면 상대적 참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Mary*가 아름답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미에 대한 기준은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장은 그 자체의 절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될 때는 인간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지적 사고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로 변한다. 의미를 개념적 범주화라고 정의한다면 문장이 갖는 절대적 의미는 절대적 범주화라고 할 수 있으며 발화된 문장이 갖는 의미는 상대적 범주화라고 할 수 있다.

(16)

문장	----->	발화
(절대적 진리)		(상대적 진리)

예를 들어 의자(chair)는 어휘 그 자체로서는 절대적 범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전적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자의 구성원들이 있고 비구성원들로 양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원들은 모두 의자라는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구성원들은 의자라는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이 어휘가 실제로 발화되면 의자에 대한 범주화는 상대적 범주화로 바뀌게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인지구조를 통해서 범주화가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지구조는 문화적, 지역적, 시간적, 경험적 지식에 따라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모여서 간단한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의자를 준비해달라고 했을 경우 등받이가 없는 의자와 긴 나무의자 그리고 다리가 없는 의자 등을 가져다 놓고 의자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예의를 지켜야 하는 공식적인 모임에서 그런 식으로 의자를 준비했다면 그것도 의자라고 편잔을 듣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의자들은 의

자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도 범주화는 달라진다. 문장 또는 어휘 그 자체가 갖는 진리 또는 범주화는 가능세계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며 발화된 문장이나 어휘는 실세계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7)에서 문장과 발화가 갖는 진리값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18) a. $[s] = [\Box s]$ ({sentence} : 절대적 진리값)
 b. $[\Box s] = 1$ iff $[s] = 1$ for all w in W .
 c. $[u] = [\Box_{SE} u]$ ({utterance} : 상대적 진리값)
 d. $[\Box_{SE} u] = 1$ iff $[u] = 1$ for all w of a speaker in W .

(18)에서 문장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주어진 진리값이 변하지 않지만 발화의 진리값은 화자가 인식하는 세계에 따라서 진리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어의 경우에는 진리값 대신에 개체들의 범주 즉 개체들의 집합을 의미값으로 갖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9) a. $[w] = [\Box w] = \{a, b, c, \dots\}$ (어휘:절대적 범주화)
 b. $[w] = [\Box_{SE} w] = \{a, b, c, \dots\}$ (발화된 어휘:상대적 범주화)

(19)에서 단어는 의미값으로 갖게 되는 개체들의 집합이 모든 가능세계에서 변하지 않는다. 반면에 발화된 단어는 의미값이 화자의 세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가능세계는 권경원(1988)에서 말하는 상위세계(meta-world)를 의미하고 실세계는 대상세계(object world)를 의미한다.⁷⁾ 다음 예문을 보자

- (20) a. Jane is intelligent.

7) 상위세계와 대상세계는 상위언어(meta-language)와 대상언어(object language)라는 개념에서 도입된 것이며 여기서 상위세계는 논리적인 모든 가능세계를 말하며 대상세계는 언어표현이 실제 적용되는 세계로 가능세계 가운데 하나인 실세계를 말한다. 발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화자가 인식하는 세계를 대상세계라고 하며 \Box_{SE} 로 나타내고 있다.

b. Jane is tall.

(21) It is raining now.

(20)이 발화되었을 경우 이들은 화자의 믿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화자에 따라서는 Jane이라는 대상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자신이 인지하는 세계만을 바탕으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에 부여되는 진리값은 상대적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가 실제 적용되는 세계에서는 모든 표현은 상대적인 진리값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 같이 언어표현이 실제로 적용되는 세계를 대상세계라고 한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자신이 인지하는 세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대상세계 사이는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에 상위세계는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참이 부여되면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 된다는 점에서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절대적 진리값이 부여되는 세계는 상대적 진리값이 부여되는 대상세계와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상위세계라고 한다. (21)의 경우에도 의미론적 진리값은 어느 가능세계에서 참이라는 것이 부여되면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 부여된다. (21)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비가 오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대상세계에서는 화자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만 참이 된다. 다른 가능세계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다.

고전적 범주화는 가능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인지언어학에서 주장하는 원형이론이나 가족유사성 이론은 실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전적 범주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범주의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원형이론에 의하면 범주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구성원이 있고 주변적 구성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 다음과 같이 경계표현을 이용하여 주변적 구성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 a. *Loosely speaking*, a chair is a piece of furniture.

b. *Loosely speaking*, a telephone is a piece of furniture.

c. *Loosely speaking*, a six-sided figure is a hexagonal.

d. *Loosely speaking*, France is hexagonal.

위에서 (7a)와 (7c)가 이상한 이유는 의자는 가구의 전형적인 구성원이고 육면체는 육각형의 전형적인 실례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7b)와 (7d)가 자연스러운 것은 전화는 가구의 주변적 구성원이고 불란서는 육각형과 유사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표현을 이용해서 범주화를 판단하는 것은 대상세계 즉 인간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자가 가구의 전형적인 구성원이고 전화기가 주변적 구성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지구조와 연관된 범주화 기능이다. 상위세계에서는 범주의 구성원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 가구의 범주에 들어가면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범주의 비구성원으로 자격을 갖게 된다. 구성원들 사이의 자격의 정도는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다. 다음을 보자.

- (22) a. A chair is a piece of furniture.
 b. A telephone is a piece of furniture.
 c. A six-sided figure is a hexagonal.
 d. A France is hexagonal.

상위세계에서는 (22a)나 (22b)에서처럼 의자와 전화기가 가구라는 범주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가능세계에서 변함이 없다. 가구라는 범주의 구성원이 어떤 것들이냐 하는 판단은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인간과 지역과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위세계에서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절대적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러한 표현들이 실제세계에 적용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적용하여 범주화를 재구성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범주화의 재구성은 의미론적 범주화를 바탕으로 한다. 의미론적 범주화는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집합원소들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 (23) a. [□ furniture] = {chair, telephone, ...}
 b. [□ hexagon] = {six sided-figure, map of France, ...}

각 범주의 구성원들 가운데 중심적인 구성원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 구성원들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먼저 접했다든가 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한다든가 아니면 인지하기가 용이하다든가 하는 이유로 인해서 중심적 구성원으로 인식될 뿐이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의 범주화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세계에서의 범주화는 상위세계에서의 절대적 범주화와는 달리 가변적이고 유연성이 있다. 비구성원들 사이에도 자격의 정도가 있다는 것을 (24)에서 보여주었고 있지만 이것 역시 실제세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상위세계에서는 (25)에서처럼 비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 (24) a. An octopus is not a fish *as such*.
 b.*A bicycle is not a fish *as such*.

- (25) [□ fish] ≠ {octopus, bicycle, ...}

고전적 이론이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모든 범주가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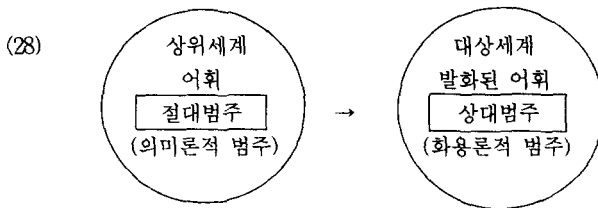
인지언어학적 입장에서는 도표 1에서처럼 범주도 계층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의자와 같은 기본범주가 있고 가구와 같은 상위범주가 있으며 부엌의자 같은 하위범주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가구를 그려보라고 하면 당황하지만 의자를 그려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자를 가리키면서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가구라고 대답하지 않고 의자라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화의 계층도 인간의 인지와 관련하여 기본범주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인지를 떠나서는 기본범주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진다. 상위세계에서의 범주화는 인간의 인지와는 무관하게 범주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주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가구나 의자의 범주화는 집합으로 나타낼 뿐이다.

- (26) a. [□ furniture] = {table, chair, bed, ...}
- b. [□ chair] = {dinning room chair, dentist chair,}

이러한 의미론적 범주화는 실제세계에 적용될 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엌에 필요한 가구를 사오라고 한다면 (27a)로 범주화될 것이고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의자에 앉으라고 할 때에는 (27b)처럼 범주화될 것이다.

- (27) a. [□_{SE} furniture] = {table, dinning room chair, ...}
- b. [□_{SE} chair] = {dentist chair₁, dentist chair₂, dentist chair₃, ...}

따라서 (17)을 범주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고전적 범주이론은 여기서 말하는 의미론적 범주를 말하며 원형이론이나 가족유사서성 이론에서 말하는 범주는 화용론적 범주를 말한다. 이 두 가지 범주는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세계에 적용되는 상대적인 범주화는 상위세계에서의 의미론적인 절대적 범주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미론적 범주를 나타내는 집합 이론적 개념은 사람들이 실제로 대상과 경험을 범주화하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범주화는 일차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Rosch(1977)가 입증한 것처럼 우리는 대상을 원형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의자의 경우에 원형적인 의자와 비원형적인 의자가 있으며 비원형적인 의자는 원형적인 의자와 갖는 관계에 의해서 의자로 이해된다. 비원형적인 의자들은 원형적인 의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핵심적인 특성이나 원형의자와의 유사성에 의해서 의자로 인지된다. 다시 말해서 원형이론과 가족유사성 이론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가족유사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속성은 모양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지각적 속성과 앓을 수 있다는 기능적 속성 그리고 쉬고 먹고 편지쓰기를 한다는 목적에 대한 속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체계적 확장이 가능하다. 이 현근(1999)에서는 단어는 공통적인 속성보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핵심적인 의미로부터 주변적인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확장은 계층적이며 비대칭적이고 방사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Langacker(1991)는 원형이론을 중심으로 *run*의 다의적 의미를 도식적인 의미망(semantic network)구조로 나타내고 있다. Lakoff(1980)에 의하면 은유적 정의는 우리가 이미 범주화한 대상과 경험을 다루거나 재범주화(recategorization)를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사랑은 전쟁」이라는 은유는 당신이 전에는 사랑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들을 사랑의 경험으로 범주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주는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절대범주는 인간의 인지구조 외적인 것으로 객관적이고 이분적이며 절대적인 진리값을 갖는다. 반면에 상대범주는 절대범주가 실제세계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주관적이고 원형적이며 상대적인 진리값을 갖는다.

V. 결론

고전적 범주이론에 의하면 사물은 본질적인 속성과 비본질적인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질적 속성에 의해서 사물의 개별성이 규정된다. 범주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자질들의 집합에 의해서 정의되고 범주자질은 이원적이다. 범주는 분명한 경계가 있고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나아가서 의미론과 음운론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받아들여서 범주자질은 원초적이며 보편적이고 추상적이며 선천적이라고 주장한다.

원형범주 이론에 의하면 범주는 계층구조를 이루며 기본범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범주는 원형적 구성원과 주변적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범주는 전문가에 의한 정의와 일반인에 의한 정의를 둘 다 고려하여야 한다. 고전적 범주이론에서는 이분적으로 구성원 비구성원만을 인정하는데 반해서 원형범주 이론에서는 범주의 구성원 자격에 정도가 있다는 점에서 연속선상의 문제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비구성원 사이에도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계표현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범주의 구성원들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고전적 이론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범주의 경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고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고전적인 범주화이론은 의미론적 개념으로 인간의 인지구조 외적인 것으로 객관화된 개념이다. 고전적 범주화는 모든 가능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절대적 진리값

을 갖기 때문에 절대범주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고전적 범주는 집합적 개념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성원과 비구성원은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양분되기 때문에 경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절대범주가 실제세계에 적용되면 인간의 인지구조를 통해서 재구성되어 상대범주로 바뀌게 된다. 실제세계에서는 인식과 지각의 측면에서 범주화가 세분되며 상대적인 진리값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세계에서 참이 되는 범주화가 다른 세계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다. 고전적 범주화는 발화되지 않은 어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며 원형적인 범주화는 발화된 어휘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 점에서 절대범주는 상위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의미론적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상대 범주는 대상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화용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경원(1988). *전제와 함의 연구* 서울: 한신 문화사
- 이기동(1994). *영어 동사의 문법* 서울: 신아사
- _____(1996). *형용사와 전치사* 서울: 동서 문화원
- 이익환(2000). *영어 의미론* 서울: 한국 문화사
- 이현근(1999). *다의 구조와 개념론. 언어 연구* 서울: 동인 출판사
- Bierwisch, M.(1967). Some Semantic Universals of German Adjectivals. *Foundations of Language* 3: 1-36
- _____.(1970). Semantics. in J. Lyons (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164-84. Harmondsworth: Penguin.
- Chomsky, N & Halle, M.(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 Davidson, D.(1967). Truth and Meaning. *Synthese* 17, PP.304-23
- Jackendoff, R.(1990).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MIT Press
- Katz, J. J. & Fodor, J. A.(1963). The Structure of Semantic Theory. *Language* 39:170-210
- Katz, J. J. & Postal, P. M.(1964). *An Integrated Theory of Linguistic Descriptions*. Cambridge: MIT Press.
- Kempson, R. M.(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 Press.
- Labov, W.(1973). The boundaries of words and their meanings. In *Baily and Shuy* (1973), 340-73.
- Lakoff, G.(1972).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CLS* 8 :183-228
- Lakoff, G. &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 Chicago Press.
- Langacker, R. W.(1991). *Foundation of Cognitive Grammar*.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Leech, G.(1981). *Semantics*. Harmondsworth: Penguin.
- Nida, E. A.(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The Hague: Mouton.
- Pulman, S. G.(1983). *Word Meaning and Belief*. London: Groom Helm.
- Rosch, E.(197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s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4: 192-233
- Tarski, A.(1933). The Concept of Truth in the Languages of the Deductive Sciences. *Logic, Semantics and Mathematics*.
- Taylor, John R.(1989).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ttgenstein, L.(1978).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lated by G. E. M. Anscombe. Oxford: Basil Blackwell.

권 경 원

목원대학교 영어교육과

302-744 대전시 서구 삼천동 가람아파트 7동 1102호

Tel: (042) 482-3568

E-mail: kwkwon@mokwon.ac.kr

Received in October, 2002

Reviewed in November, 2002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2002